

# 강남 지역의 소비 문화 경관 연구

## A Study on the Landscapes of Consumer Culture in Kangnam

심 승 희(청주교육대학교, geossh@cje.ac.kr)

강남지역 소비문화 경관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자는 강남 지역 소비문화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강남 지역 소비문화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강남지역이라는 공간이 이 지역 소비문화의 형성과 유지, 변화에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보다 명료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가설로 설정한 강남지역의 소비문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즉 첫째 강남 지역의 소비문화는 자본주의 소비문화를 확대재생산하는 중심지(전파지)인가? 둘째 강남 지역의 소비문화는 계급간 구별짓기를 위한 수단인가? 다시 말해서 강남지역 소비문화의 특성을 '중심성'과 '배타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중심성'과 '배타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은 대립적인 것 같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문화의 발달이란 모방과 차별화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립적이기도 하다. 즉 피지배집단은 지배집단의 문화를 모방하고(그 문화가 가진 중심성 때문), 이에 지배집단은 피지배집단의 모방원리에 대항하여 새로운 차별화를 시도하며, 양자의 상호과정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먼저 강남지역 소비문화의 중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랜드마크중 강남 지역 소재의 랜드마크가 차지하는 비중(시기별 랜드마크의 속성변화에 주목), ② 호텔, 컨벤션센터 등 고차서비스 기능의 분포에서 강남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③ 최근 새로 론칭한 외식 및 프랜차이즈 산업 1호점의 입지에서 강남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④ 강남 지역의 교통결절지(버스 및 지하철)로서의 위상 등이다. 이와 더불어 강남지역 중에서도 높은 접근성과 서비스 시설의 집중으로 중심성이 매우 높은 강남역과 삼성역 코엑스물 두 지역을 사례로 강남 지역 소비문화의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두 지역 모두 강남 지역의 중심지이기는 하지만, 그 공간적 특성은 매우 다르다. 삼성역 코엑스물의 경우는 단일 관리체제로 조절되는 거대한 지하소비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남 지역의 중심지들이 종로나 신촌과 같은 타지역의 중심지와 비교할 때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 뿐만 아니라 강남역과 삼성역 코엑스물의 비교 연구도 함께 진행중이다.

또한 강남지역 소비문화의 배타성과 차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80년대말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은 압구정동, 청담동의 소비경관을 사례로 그 곳의 경관적 특성(거리에서 두드러진 업소의 형태와 기능, 건물들의 모양새, 간판과 네온사인, 각 공간이 창출하는 의미구조)과 점유자(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문화적 특성(생애사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처럼 강남지역의 소비문화의 특성을 '중심성'과 '배타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이러한 소비

문화가 경관상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초점은 가시성(visibility)과 비가시성(invisibility)의 경합이다. 강남 지역의 소비문화가 가지는 '중심성'과 '배타성'은 모두 경제력에 기반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시성은 곧 화폐권력"이기 때문이다. 즉 강남 지역의 소비문화는 현대적이고 이국적이며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끊임없이 경관상에 표출하고자 하는데, 이는 '노블 벨리' 등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의 부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성형특화지구나 연예특화지구, 웨딩지구, 명품거리와 같이 노골적인 가시성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하며, 멤버십 카페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간판, 감시카메라 등 은밀한 가시성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성이 부각되는 이면에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통제되는 비가시성이 존재한다. 노점상, 홈리스(homeless), 반지하 및 고시원 생활자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유자 외에도 강북 지역에 비해 역사 역시 상당히 비가시적이다. 강남 지역은 최첨단 소비문화의 중심지로서 미래화를 표방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는 제거되거나 소멸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